

## 초등학생의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부모, 친구, 교사관계를 중심으로-

박은주 · 심우엽

(춘천교육대학교)

### I. 서론

초등학생들은 하루 시간의 삼분의 일 가량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으며, 학교가 아동들의 중심환경의 하나로 자리 잡게 되면서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학교는 아동이 새로운 지식을 학습하고, 가치관·동기·태도 등의 행동 경향을 발달시키는 학습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 가정을 떠나 광범위한 경쟁에 참여하게 하며, 교사·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아개념을 형성하고, 사회적 접촉을 통해 살아가는데 필요한 다양한 대인관계 기술을 배울 수 있게 해 준다. 나아가 학교는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힘을 길러 가는데 길잡이가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학교생활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초등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이해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저연령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친구 사이의 폭행 사건이나 집단 따돌림(동아일보, 2002.11.15), 가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학업성적 부진을 비관하여 자살한 사건(한겨레신문, 2003.11.17) 등은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초등학생들의 상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초등학생들의 학교적응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보면 대체로 인간관계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부모자녀관계, 친구관계, 교사관계가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선행연구들은 학교적응과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 부모는 아동의 성장과정에 있어 아동이 접하게 되는 최초의 교육자이자 동일시의 대상이다. 부모를 통하여 예절을 습득하고, 부모와의 상호 작용을 통하여 대인 관계를 위한 기술을 습득한다. 부모와의 경험은 이후 사회·정서적 발달의 개인적인 차이를 결정짓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부모-자녀와의 관계는 가장 기본적이고 영구적인 관계로 인간의 성장 발달에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그리고, 친구는 아동의 학교 생활에서 빠뜨릴 수 없는 학습놀이·정서적 교류경쟁의 상대자이며, 따라서 친구관계도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다. 학급내의 안정적인 친구관계에서 얻어지는 정서적지지, 대인간 기술, 인정 등은 아동의 발달과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Ladd & Kochenderfer, 1996), 학교친구들로부터 높은 수준의 지지를 받고 도움을 받는 경우 학교에서 자신감과 안정감을 갖게 된다(차유립, 2001, 재인용).

교사 또한 아동이 대부분의 학교생활을 함께 보내는 중요한 인물로 우리나라 초등학교생에게는 아주 중요한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김혜경(2000)은 아동의 학교적응에 교사의 지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라고 하였으며, 교사는 학교를 구성하는 주요 체계이며 일반적으로 교사와의 관계가 원만할수록 교사가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며 학교적응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안향숙, 2003; 이수정, 2003).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진행되어온 아동의 학교적응 관련연구는 주로 아동 개인의 특성과 학교적응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것들인데 성, 연령, 학업성적, 자아개념, 자아존중감, 문제해결능력과 같은 개인적인 특성에 따른 학교적응을 살펴본 것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아동의 가정환경과 친구관계 및 학교환경과 학교적응간의 연구들이 일부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나, 변인들간 일대일의 관계를 주로 규명하려고 하였다. 다시 말하여, 아동들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간의 상호관계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간의 상대적 설명력을 고려하는 연구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이런 점을 감안하여 초등학교 학생들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부모자녀관계, 친구관계, 교사관계를 함께 고려하여 각 요인들은 학교적응과 어떠한 관련이 있으며, 각 요인들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은 어떠한지를 통합적으로 살펴보고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초등학교생의 학교적응에 대한 이해를 돕는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 교사와 학부모·학교가 교육적 차원에서 아동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나아가 학교적응을 돕는 가정과의 연계, 바람직한 친구관계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에 도움을 주어, 궁극적으로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상의 연구 목적을 바탕으로 연구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생의 학교적응은 부모자녀관계, 친구관계, 교사관계 상하집단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둘째, 초등학생의 부모자녀관계, 친구관계, 교사관계는 학교적응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가?

셋째, 초등학생의 학교적응은 학년·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II. 이론적 배경

### 1. 학교적응

인간은 끊임없이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살아가게 된다. 적응이란 환경의 요청에 부여하여 스스로의 욕망을 조절함으로써 균형을 이루어 나가는 것, 즉 욕구와 가능공간에 균형을 이루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Lazarus(1976)는 적응은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주변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각 개인의 투쟁을 의미한다고 하였으며, 환경과의 역동적인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해 나가는 창조적인 과정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적응의 개념은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인의 내면적 요인과 외면적 요인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각 개인이 주변 환경과 조화 있는 관계를 이룩해야 한다는 기능적인 측면과 더불어 환경을 개인적인 요구에 맞도록 변화시키는 적극적인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백영광, 2001, 재인용). 따라서, 적응이란 단지 개인적인 문제인 것이 아니라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임을 알 수 있으며, '개인과 환경 사이에 자신의 욕구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며 만족감을 느끼고 조화 있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 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적응은 학교라는 환경 안에서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환경을 변화시키는 한편, 학교환경의 요구에 따라 자신을 변화시킴으로써 학교환경과 개인 사이에 균형을 이루려는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과정으로 정의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의 적응의 개념들에 기초하여 과정적인 측면과 전반적인 생활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 즉, 학교적응(school adjustment)을 학생의 모든 행동이 학교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잘 조화되고 성공적인 관계를 형성시킴으로서 교사, 친구 등 의미 있는 타인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가며 역할을 수행해 가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초등학교 아동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가정, 학교, 사회 중 미성숙한 초등학생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며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아동들이 바르게 적응할 수 있는 힘을 의도적으로 길러주는 곳이 학교라고 할 때 학생들의 학교적응 여부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Berbe(1994)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사회적 부적응을 나타낸다고 하였으며, Heck(1983)는 집단이 설정한 규율에 적응하지 못하고 집단으로부터 배척되고 무시당하는 학생을 이상적 문제 행동을 소유한 학생으로 보고 이런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흥미를 상실하고 무단결석이 잦으며 가정, 학교, 사회에서 부적응 행동을 일으키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차유림, 2001, 재인용).

반면, 김광영(1999)에 의하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학생은 학교에 대한 감정이나 태도, 동기가 긍정적이기 때문에 대인 관계가 원만하여 학업성적이 향상되고 행동 특성이 바람직하게 형성되어 개인의 성장은 물론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하게 된다고 한다.

따라서 학교에서의 적응은 학교학습 과정과 상황에서 학생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며 학교생활 과정에서 접하게 되는 여러 교육적 여건들을 자신의 요구에 알맞게 변화시키거나 자신이 그 여건에 바르게 수용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아동의 학교적응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결정하고, 이후 성인기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임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적응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하위영역은 연구자별로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다르게 연구되었는데 박원희(2003)가 정리한 것에 본 연구자가 보충 한 것을 표로 나타내어 보면 <표 II-1>과 같다.

<표 II-1>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학교적응도 측정을 위한 하위영역

연구자	학교적응도 측정을 위한 하위영역
Dubois	학업성적, 학교출석일, 학습에 관련된 자아개념
Kurdek et al	성적, 기초지식에 대한 성취점수, 문제 행동
Ladd	학교에 대한 지각, 학교활동 참여, 학업관련 실천결과
김지혜	수업참여도, 학교생활만족도, 학업 성취도, 문제행동
문선모	교사관계, 교우관계, 인지기술, 수업참여, 자기통계
임정순, 유은희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교수업, 학교규칙
조정숙	교사-학생, 교우, 학습활동, 규칙준중, 학교행사
김용래	학교환경, 학교수업, 학교선생님, 학교친구, 학교생활
황경미	아동의 학교에 대한 지각, 학교학급에서의 활동성, 학습관련 태도 및 행동

이상의 학교적응 영역에 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황경미(1998)의 자료인 아동의 학교에 대한 지각, 학교·학급에서의 활동성, 학습관련 태도 및 행동의 세 영역을 학교적

응 영역으로 설정하고 아동의 자기 평정으로 이를 측정하였다.

## 2. 부모자녀관계

태내에서 시작된 부모와 자녀 관계는 인간이 맺게 되는 최초의 관계이며, 인간은 이 관계를 통하여 성장하고 발달하게 된다. 인간은 출생과 더불어 부모를 모방하거나 동일시함으로써 인지구조가 변화되고, 행동 양식을 모방하고 학습하며 생활 습관이나 도덕성이 형성된다. 이때 부모는 자녀에게 삶을 위한 경험을 쌓게 해 주고 동일시의 대상이 되면서 최초의 교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개인의 성장 과정에서 가족들과의 상호작용, 그 중에서 부모자녀 관계를 어떻게 경험하였는가는 아동의 성격 형성이나 지적 발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라 할 수 있다.

부모자녀관계는 크게 양육 방식과 의사소통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양육방식은 부모 또는 양육자가 아동을 양육함에 있어서 일반적 또는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태도 및 행동을 의미한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보이는 양육방식은 자녀의 성격 발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Mussen은 부모의 양육방식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첫째, 부모들의 태도가 온정적이며 허용적일 때 자녀는 창의성이 높고 독립적이며 사회활동에 단호한 태도를 가진다. 둘째, 부모의 태도가 온정적이며 엄격할 경우 자녀는 부모에게 유순한 태도를 가지며 규칙을 준수하고 순종적이며 공손하고 다정하다. 셋째, 부모의 태도가 적대적이며 단속적일 경우 자녀는 자기에 대한 공격성과 사회적으로 위축되는 면, 내면적 갈등과 증상이 극대화한다. 넷째, 부모의 태도가 적대적이고 허용적일 경우 자녀는 공격적이고 조절되지 못한 행동이 극대화된다고 하였다. 또한 부모간의 태도의 불일치는 자녀들로 하여금 자신이 행할 행동에 대해 정확한 인식을 하지 못하게 하여 성격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고 설명하였다(배숙진, 1998, 재인용).

그리고, 부모자녀관계는 일방적 관계가 아니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 교류적 관계로서 광범위한 경험과 책임을 공유하는 밀접한 관계이다.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은 상호간의 공통적 이해를 근간으로 해야 효율적으로 이루어짐을 고려할 때, 부모-자녀간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수단인 의사소통은 언어적 상호작용으로서 부모자녀관계를 분석하는데 강조되어야 할 요소라 할 수 있다(김정선, 1995).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은 부모-자녀간의 긴장이나 갈등관계를 해소할 수 있고, 부모-자녀간의 단결과 애착을 도모할 수 있으며, 자녀의 성공적인 발달과업 완수 및 바람직한 사회적 적응을 유도할 수 있는 것이다(민하영, 1991).

의사소통은 단순한 메시지의 전달 뿐 아니라 구성원간의 밀접한 감정교류와 정보 전달 등

을 포함하는 상호작용이다. 심리적 요인 중에서도 특히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신뢰 있고 애정적인 부모자녀관계 형성을 가능하게 하므로 매우 중요하다(김수연, 1997).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부모의 일관된 양육 태도와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자녀들에게 정서적인 안정과 이해를 도울 뿐만 아니라, 사회성 발달과 대인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학교생활 적응에 도움을 준다고 여러 연구들은 밝히고 있다. 이미경(1999)은 초등학생과 그 어머니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 결과에서 어머니의 양육방식과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는 애정-자율적인 경우 교사, 학습활동, 규칙 준수, 학교행사 참여 관계 영역에서 상위집단의 아동이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김현정(1998)은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결과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질수록 학교생활 태도 및 적응도가 높아진다고 밝히고 있다.

이상의 부모자녀관계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토대로 본 연구는 부모자녀관계가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보고, 부모의 영향을 청소년기 이후보다 많이 받는 초등학교 학생에게는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더욱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고, 부모와의 의사소통의 정도로써 부모자녀관계를 파악하여 학교적응과의 관련성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 3. 친구관계

아동이 성장함에 따라 아동을 둘러싼 환경은 가정에서 점차 다른 사회집단으로 확대되어간다. 특히 아동은 학령기에 이르면서 학교생활과 방과 후의 활동으로 많은 시간을 친구나 또래와 함께 보내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방법을 익히게 된다.

Damon(1977)은 친구란 도움을 요청할 때 도와주며, 서로 이해하고 사적인 생각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감정과 비밀을 이야기하는 등 심리적 문제 해결을 돕고 심리적 고통이나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하는 지속적이며 양방적인 관계라고 하였다(황경미, 1998, 재인용).

대부분의 아동들은 친구들 중에서도 자신들이 서로 만족할 만한 관계를 형성하는 한 명, 또는 몇 명의 친구들과 특별한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이것이 친구관계(Peer Relationship)이다. Grusec과 Lytton(1988)은 이러한 친구관계는 아동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주요 영역으로서 큰 의미를 지니며, 친구사이의 우연적이고 간헐적인 상호작용 이상의 것이라고 하였으며, Parker 와 Asher(1989)는 한 집단에서 함께 놀지만 모두가 친구는 아니며, 많은 친구들 중에서도 아동에게 의미 있는 타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친구라고 하였다(석윤희, 2003, 재인용).

친구간 상호작용은 항상 긍정적인 경험만을 제공하는 것만은 아니다. 친구간 상호작용은 상호작용을 통해 애정·협동·결속력·도움 등과 같은 사회적지지 측면을 경험하기도 하는 반

면, 대립·갈등·차별과 같은 부정적인 상호교환도 나타나는데 이는 피할 수 없는 경험이다.

학자들이 친구관계 속에서 규정되어지는 긍정적·부정적 특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연구한 것들을 연구자별로 소개하면 다음 <표 II-2>와 같다(황경미, 1998, 재인용).

<표 II-2> 친구관계 특성에 관한 연구자들의 영역 분류

연구자	친구 관계의 특성	
	긍정적 특성	부정적 특성
Berndt 와 Perry (1986)	놀이, 충실성, 친사회적 행동, 친밀감, 애착과 자기 존중감 고양	갈등
Parker와 Asher (1989)	교제, 충실성, 친사회적 지원, 친밀감, 자기 인정	갈등, 갈등 해결
Berndt (1989b)	친사회적 행동, 친밀, 자기존중의 지지	갈등, 경쟁의식
Buhrmester (1990)	친구관계의 시작, 자기노출, 정서적 지원 제공	부정적 주장, 갈등 처리
Parker와 Asher (1993)	교제와 오락, 도움과 지도, 인정과 관심, 친밀한 의사교환	갈등과 불신, 갈등 해결
Ladd 등 (1996)	교제, 배척성, 친밀, 도움, 자기노출, 인정	갈등

이렇듯 친구관계는 가족을 벗어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시초가 되는 중요한 영역으로 긍정적 특성과 부정적 특성을 동시에 경험하게 되므로 아동에게는 적응·부적응의 사회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초등학교 아동이 밀접한 친구 관계를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동 발달에 있어서 여러 가지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다음의 친구관계의 기능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자아개념과 자아존중감을 형성하는 것을 증진시킨다(Price, 1996). 즉, 아동은 친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보다 가족을 벗어난 큰 사회 관계망 내에서 스스로의 정체감을 발견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우수정, 2001, 재인용). 둘째, 친구와의 경험은 사회적 기술 즉 다양한 사회적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는 맥락을 제공한다(Price, 1996). 아동이 동등한 위치의 개인을 접할 기회가 없다면 효과적인 의사소통기술을 배울 수 없을 것이고, 자신의 공격적인 행동을 조정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습득할 수 없을 것이며, 성 사회화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도덕적 가치 형성에 있어서도 불리해질 것이다. 아동들은 친구관계를 통해 타인의 관심사에 대한 이해, 타인과 의사소통 하는 능력 등을 포함한 사회인지적 기술의 기초를 발달시키게 된다. 셋째, 친구 관계는 인지발달과 도덕성 발달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친밀하고 협력적인 친구 관계는 논쟁에 있어 개방적이고 상호활동과 자기노출에 적극적이고 관계의 만족에 대한 상호감정에 적극 참여하므로 이런 상황은 아동의 인지적·도덕적 발달을 촉진시킬 것이다(황

경미, 1998). 넷째, 친구간 상호 작용은 아동의 사회적 지지와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한다. Bukowski 와 Hoza(1989)는 아동기에는 친구들로부터의 평가가 부모의 평가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또래집단으로부터 수용되고 인정받음으로써 부모가 제공할 수 없는 정서적 안정감을 갖게 되며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게 된다고 하였다(정옥분, 2002, 재인용).

이처럼 친구관계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것은 친구관계에서의 상호작용을 통해 타인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게 되며, 신체적·인지적·사회적 기술을 발달시킬 수 있는 중요한 맥락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특히 친구관계에 있어서 사회적 지지나 정서적 안정감 제공과 같은 질적인 면은 아동에게 자기존중감과 정서적 안정감 등의 사회 정서적 발달에 중요한 공헌을 하며, 친구와의 상호작용에 발생하는 갈등은 도덕성과 인지능력 발달에 기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많은 긴장과 불안 상태를 유발하여, 다양한 문제에 대처해 나가야 하는 학교생활에서 사회적·정서적 지원의 원천으로서 아동의 친구관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고 하겠다.

친구관계와 적응에 관련된 최근의 연구는 아동 적응의 영향력 있는 공헌자로서 친구 관계의 질적(친밀도, 상호간에 주고받는 내용)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표 II-2>에서 볼 수 있는 친구관계에서의 특성 중 친구관계와 관련된 역동적인 특징(공유활동, 지원, 갈등 등)은 아동에게 다양한 심리적 이익과 비용을 창출하여, 아동의 발달과 적응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황경미, 1998).

즉, 학교와 같이 중요한 사회화 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도움, 친밀, 인정 등 긍정적 특성이 강한 친구관계를 가진 아동은 정서적·물질적 지원을 보다 많이 받을 수 있어 학교의 요구에 성공적으로 대처하며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것이다. 반면, 부정적 특성인 갈등과 경쟁의식은 아동의 학교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차유림, 2001).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친구 사이에서 인정받고 있다고 지각할 때 아동은 학교를 선호하며 특히 친구간의 인정과 원조가 아동의 학교에서의 정서적 생활의 질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이호선, 2000). 따라서 친구관계가 안정적이며 긍정적인 친구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아동일수록 학교적응이 보다 긍정적일 것이며, 그렇지 못할 경우 다소 부정적일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친구관계 중 긍정적 특성이 강한 친구관계를 가진 아동은 정서적·물질적 지원을 보다 많이 받을 수 있어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한다는 선행연구들의 관점을 바탕으로, 다음 <표 II-3>과 같은 박지원(1985)의 사회적 지지를 아동의 자기평정으로 측정하여, 사회적 지지와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기능을 중심으로 학교적응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lt;표 II-3&gt; 사회적 지지 요인

하위요인	구성 내용
정서적 지지	사랑, 이해, 관심, 공감적 경청
평가적 지지	칭찬, 소질인정, 인격존중, 공정한 평가
정보적 지지	문제 해결, 의사결정, 위기상황에서 제공되는 충고, 조언, 지식 제공
물질적 지지	필요시, 돈, 물건, 시간 등을 제공

#### 4. 교사관계

학교는 가르치고 배우는 곳으로 교수와 학습활동을 통하여 교사와 학생 간에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아동들은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으며 교사로부터 알게 모르게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는 아동발달 측면에서 볼 때, 인격이 형성되어지는 주요 기반이 마련되어지는 시기이며, 학교생활의 대부분을 담임교사와 함께 하는 우리나라 초등학교생들은 교사와 보내는 시간 속에서 받는 영향이 인간적인 성장 면에서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사와의 관계는 성공적인 학교적응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교사는 학생과 두 가지 측면에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나는 학생 개인의 사회적·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적이고 자유로운 인간관계이며, 또 하나는 학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학습활동을 중심으로 한 인간관계이다.

교사는 지식의 전달자로서 객관적 지식을 학생에게 전달해주며 학생의 사회화를 도와주는 역할 즉, 학생들 개개인과 개별적인 접촉에 의해 진정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역할과 가치교육자로서 가치 전수자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며 교육의 수준과 능력의 가능성을 판단·평가하여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심우엽(2000)은 교육장면에서 보여 지는 교사의 행동은 교사가 전달하려고 했던 의도와 관계없이 언어적·비언어적 행동을 통해 아동에게 전달되며 이 행동은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자기 효능감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더욱이 학급담임제인 우리나라의 초등학교에서 교사는 학생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 많은 시간을 같이 학습하고 생활하는 동안 학생들은 자기도 모르게 담임교사의 행동과 가치관을 모방하게 되고 동일시하게 된다. 담임교사가 너무 좋아서 어떤 학생은 담임교사가 가르치는 학습에 흥미를 갖게 되고 그 교사가 좋아하는 과목을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되며 교사가 좋아하는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노력하고 각종 학교행사에도 적극 참여하며 교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경향을 보인다.

반대로 어떤 학생은 교사의 의도적인 행동을 거부하며 학습에도 흥미를 잃고 산만한 경향을 보이며 각종 행사에도 불참하게 되는 등 담임교사와의 맞지 않는 행동양식 때문에 잘 적응

하지 못하기도 한다. 특히 학급에서 교사는 교육의 핵심적 존재로서 교육의 성패를 좌우하며, 학생들이 수행하는 학습활동은 교사의 의식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된다.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는 일대일이 아니라 일대 다수로, 교사의 특성은 학습 과정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안향숙, 2003).

이수정(2003)은 아동이 지각한 교사 행동이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에서 아동이 지각한 교사 행동이 긍정적인 집단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 척도가 높게 나온다고 하였다. 권영숙(2002)은 초등학생이 지각한 교사의 인성 특성과 학교생활의 적응 분석 연구 결과에서 학교생활적응의 하위변인인 교사관계와 교사의 인성 특성과의 상관관계수가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즉 교사의 인성 특성에 따라 학생들의 학교생활적응도에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승미(1998)는 사회적 지지와 스트레스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주고 학교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특히 교사의 지지와 학교스트레스는 아동들의 학교생활 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교사와의 인간관계가 원만할 때 학생들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자아개념의 형성과 밝은 성격을 갖게 된다. 또한 교사와의 바람직한 인간관계는 학생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해주고, 학습효과에도 긍정적 효과를 주게 되어, 교육목표 달성도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안창선, 남경현, 이옥범, 1997).

이와 같이 학교교육의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간의 상호작용은 교육활동의 중심이며 이것이 아동의 인간적인 발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아동이 교사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긍정적인 영향력과 더불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교사와의 관계는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교사관계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토대로 본 연구는 교사관계가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보고, 교사의 영향을 많이 받는 초등학교 학생에게는 교사가 더욱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고, 교사의 사회적지지, 교사와의 인간관계 정도로써 교사관계를 파악하여 학교적응과의 관련성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 Ⅲ.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2004년 7월 12일부터 16일까지 춘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초등학교 1개교에서 4학년, 6학년 학생들을 임의표집하여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표집 인원은 4학년 250명(남 125명, 여

125명), 6학년 250명(남 125명, 여 125명), 500명이었고 회수된 질문지는 460부였다. 그 중에서 자료 수집에 필요한 응답을 충실하게 하지 못한 대상자는 제외하고 다음 <표 III-1>과 같이 4학년 200부(남 100부, 여 100부), 6학년 200부(남 100부, 여 100부)를 연구에 사용하였다.

<표 III-1> 표집 대상

성별	학년	4학년	6학년
	남		100
여		100	100
합계		200	200

## 2. 연구 도구

연구에 사용된 측정 도구는 부모자녀관계, 친구관계, 교사관계, 학교적응 질문지로 다음과 같다. 부모자녀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도구는 박영희(2002)의 부모자녀관계 질문지(Cronbach  $\alpha=.84$ )와 장호선(1987)이 사용한 질문지를 참고로 하여 심란희(2004)가 작성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질문지는 20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개방적 의사소통, 역개방적 의사소통의 두 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척도별로 10문항씩 총 20문항으로 구성된 5점 척도로, 개방적 의사소통의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에 5점을 주며, 역개방적 의사소통 문항은 반대로 '매우 그렇다.'에 1점에서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에 5점을 준다. 따라서, 두 척도의 모든 점수를 합하여 개인이 얻을 수 있는 점수의 범위는 20점에서부터 100점까지가 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보다 기능적이라 할 수 있고 부모자녀관계가 원만하다고 할 수 있다.

부모자녀관계 질문지 문항의 구성 내용은 다음 <표 III-2>와 같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  $\alpha=.864$  이었다. 친구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질문지는 이계원(2001)의 사회적지지 질문지(Cronbach  $\alpha=.95$ )를 중심으로 장미애(1998)가 사용한 질문지를 참고로 하여 심란희(2004)가 재구성하여 작성한 것이다. 이계원(2001)은 부모, 교사, 친구로부터의 지지에 대한 지각정도를 평가하는 척도로 사용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친구부분만 평가하였다.

이 질문지는 정서적지지, 평가적지지, 정보적지지, 물질적 지지의 4개의 하위요인 25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5점 척도에 따라 응답하게 되어있고,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에 5점을 주었다. 따라서, 얻을 수 있는 점수의 범위는 25점에서부터 125점까

지가 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고 있으며, 아울러 친구 관계가 원만하다고 보았다.

<표 III-2> 부모자녀관계 질문지 문항 구성

문항번호/문항내용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 α
정서적 지지	1, 2, 3, 4, 5, 6, 7.	7	.846
평가적 지지	8, 9, 10, 11, 12, 13.	6	.813
정보적 지지	14, 15, 16, 17, 18, 19.	6	.803
물질적 지지	20, 21, 22, 23, 24, 25.	6	.828
계	25	25	.936

문항번호/문항내용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 α
개방적 의사소통	1, 3, 6, 7, 8, 9, 13, 14, 16, 17.	10	.852
역개방적 의사소통	2, 4, 5, 10, 11, 12, 15, 18, 19, 20.	10(역산문항)	.744
계	20	20	.864

친구관계 질문지 문항의 구성 내용은 다음 <표 III-3>과 같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 α=.936 이었다.

<표 III-3> 친구관계 질문지 문항 구성

문항번호/문항내용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 α
정서적 지지	1, 2, 3, 4, 5, 6, 7.	7	.846
평가적 지지	8, 9, 10, 11, 12, 13.	6	.813
정보적 지지	14, 15, 16, 17, 18, 19.	6	.803
물질적 지지	20, 21, 22, 23, 24, 25.	6	.828
계	25	25	.936

교사와의 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질문지는 친구, 가족과 교사로부터 정서적 지원을 평가하도록 한 Dubow와 Ullman(1989)이 만든 Social Support Appraisals Scale을 변안한 사회적 지지 문항 중 교사와의 관계를 묻는 5문항을 중심으로 김영미(2000)가 총 10개의 문

항으로 재구성한 것(Cronbach  $\alpha=.84$ )이다.

이 질문지는 총 10문항으로 교사의 사회적 지지와 교사와의 인간관계, 2개의 하위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5점 척도에 따라 응답하게 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에 5점을 주었다. 역산문항인 4, 5, 7번 문항은 반대로 '매우 그렇다.'에 1점에서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에 5점을 주었다. 따라서, 개인이 얻을 수 있는 점수의 범위는 10점에서부터 50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교사와의 인간관계가 원활하고 신뢰감이 깊음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교사관계 질문지 문항의 구성 내용은 다음 <표 III-4>와 같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  $\alpha=.864$  이었다.

<표 III-4> 교사관계 질문지 문항 구성

문항내용	문항번호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 $\alpha$
교사의 사회적 지지		1, 2, 3, 4*, 5*	5	.639
교사와의 인간관계		6, 7*, 8, 9, 10	5	.670
계		10	10	.794

\* 역산문항

학교적응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질문지는 Ladd, Kochenerfer와 Coleman(1996), 정순례(1992)의 선행 연구에서 사용한 질문지를 참고로 황경미(1998)가 작성하여 사용한 것(Cronbach  $\alpha=.88$ )을 본 연구자가 총 30개의 문항으로 재구성하여 활용하였다.

학교적응 질문지는 아동이 학교·학급에서의 생활을 얼마나 잘해 나가고 있는 것인가를 묻는 것으로 학교에 대한 지각, 학교·학급에서의 활동성, 학습 관련 태도 및 행동 등의 하위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5점 척도에 따라 응답하게 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에 5점을 주었다. 역산문항은 반대로 '매우 그렇다.'에 1점에서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에 5점을 주었다. 따라서, 개인이 얻을 수 있는 점수의 범위는 30점에서부터 150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적응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학교적응 질문지 문항의 구성 내용은 다음 <표 III-5>와 같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  $\alpha=.910$  이었다.

&lt;표 III-5&gt; 학교적응 질문지 문항 구성

문항번호·수 문항내용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 $\alpha$
학교에 대한 지각	1*, 4*, 7, 10, 13, 16, 19, 22*, 25, 28	10	.805
학교·학급내 활동성	2, 5, 8, 11, 14, 17, 20, 23, 26, 29*	10	.792
학습관련 태도·행동	3, 6, 9, 12, 15, 18, 21, 24, 27, 30	10	.808
계	30	30	.910

\* 역산문항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의 처리를 위하여 SPSS(win) 10.1K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 IV. 결과 및 해석

### 1. 부모자녀관계, 친구관계, 교사관계에 따른 학교적응의 차이

각 변인의 상하 집단에 따른 학교적응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F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IV-1>과 같다.

&lt;표 IV-1&gt; 각 변인 상하 집단에 따른 학교적응 변량분석

source	SS	df	MS	F	p
부모자녀관계	17521.943	1	17521.943	86.467	.000
친구관계	15106.572	1	15106.572	74.548	.000
교사관계	21223.450	1	21223.450	104.734	.000
부모자녀 * 친구관계	224.591	1	224.591	1.108	.293
부모자녀 * 교사관계	348.491	1	348.491	1.720	.190
친구관계 * 교사관계	52.520	1	52.520	.259	.611
부모관계 * 친구관계 * 교사관계	469.934	1	469.934	2.319	.129
오차	79435.659	392	202.642		
수정 합계	134383.160	399			

수정된 R 제곱 = .398

<표 IV-1>에서 각 변인 상하 집단 간의 학교적응 차이를 보면 부모자녀관계, 친구관계, 교사관계 모두 상하 집단 간 학교적응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별로 살펴보면 <교사관계> <부모자녀관계> <친구관계> 순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자녀관계 \* 친구관계, 부모자녀 \* 교사관계, 친구관계 \* 교사관계, 부모관계 \* 친구관계 \* 교사관계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 각 변인 상하집단간 학교적응의 평균 및 표준편차

		N	$\bar{X}$	S
부모자녀관계	상	196	110.862	17.749
	하	204	97.623	16.524
친구관계	상	202	111.540	17.784
	하	198	96.530	15.656
교사관계	상	201	113.632	16.349
	하	199	94.493	14.957
합계		400	104.110	18.352

각 변인 상하집단간 학교적응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IV-2>와 같다. 결과적으로 부모자녀관계, 친구관계, 교사관계 모두 점수가 높을수록, 즉 관계가 좋을수록 학교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사관계에 있어서 상하집단간 학교적응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2. 부모자녀관계, 친구관계, 교사관계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구문제 2>의 부모자녀관계, 친구관계, 교사관계의 학교적응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을 규명하기 위해 종속변수로 학교적응을 설정하고, 부모자녀관계, 친구관계, 교사관계를 독립 변수로 설정하여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하였다. 학년과 성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각 변인이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IV-3>과 같다.

<표 IV-3>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다회귀분석(N=400)

변인	베타계수(B)	표준화베타계수( $\beta$ )	t(p)	모형요약
부모자녀관계	.283	.207	5.421(.000)	Adjusted $R^2=.53$
친구관계	.290	.297	8.089(.000)	
교사관계	1.190	.470	12.570(.000)	

<표 IV-3>에서 보듯이 이들 요인들이 전체적으로 학교적응을 설명하는 변량은  $R^2=53\%$ 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부모자녀관계, 교사관계, 친구관계가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며, 교사관계>친구관계>부모자녀관계 순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의 모형 적합도는  $F=149.55, p=.000(d f_1=3, d f_2=396)$  으로서 매우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각 요인들이 학년과 성별에 따라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학년별로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IV-4>와 같다.

<표IV-4>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학년별 중다회귀분석

변인	학년	베타계수 (B)	표준화 베타계수( $\beta$ )	t(p)	모형요약
부모자녀 관계	6학년(N=200)	.339	.255	4.705(.000)	6학년 Adjusted $R^2=.51$
	4학년(N=200)	.186	.135	2.475(.014)	
친구관계	6학년	.325	.351	6.758(.000)	4학년 Adjusted $R^2=.51$
	4학년	.248	.259	4.692(.000)	
교사관계	6학년	.938	.410	7.753(.000)	Adjusted $R^2=.51$
	4학년	1.431	.514	9.384(.000)	

<표 IV-4>에서 보듯이 6학년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 이들 요인들이 전체적으로 학교 적응을 설명하는 변량은  $R^2=51\%$ 로 나타났다. 부모자녀관계, 친구관계, 교사관계 모두가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며, 교사관계> 친구관계> 부모자녀관계 순으로 영향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4학년을 대상으로 했을 때, <표 IV-4>에서 보듯이 이들 요인들이 전체적으로 학교적응을 설명하는 변량은  $R^2=51\%$ 로 나타났다. 부모자녀관계, 친구관계, 교사관계가 학교 적응에 영향을 주며, 교사관계> 친구관계> 부모자녀관계 순으로 영향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모자녀관계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본 결과, 4학년·6학년 모두 교사관계> 친구관계> 부모자녀관계 순으로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표 IV-4>에서 보이는 것처럼 6학년은 4학년에 비해 부모자녀관계, 친구관계가, 4학년은 6학년에 비해 교사관계가 상대적으로 학교적응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각 변인이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표 IV-5>와 같다.



&lt;표IV-5&gt; 학교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성별 중다회귀분석

변인	성별	베타계수 (B)	표준화 베타계수( $\beta$ )	t(p)	모형요약
부모자녀 관계	남학생(N=200)	.281	.194	3.623(.000)	남자
	여학생(N=200)	.314	.241	4.315(.000)	Adjusted
친구관계	남학생	.335	.340	6.456(.000)	$R^2=.51$
	여학생	.240	.249	4.781(.000)	여자
교사관계	남학생	1.109	.437	8.081(.000)	Adjusted
	여학생	1.221	.485	9.217(.000)	$R^2=.55$

<표 IV-5>에서 보듯이 남학생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 이들 요인들이 전체적으로 학교적응을 설명하는 변량은  $R^2=50\%$ 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경우는 부모자녀관계, 친구관계, 교사관계 모두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교사관계>친구관계>부모자녀관계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모자녀관계는 영향을 적게 미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 <표IV-5>에서 보듯이 이들 요인들이 전체적으로 학교적응을 설명하는 변량은  $R^2=55\%$ 로 나타났다. 부모자녀관계, 교사관계, 친구관계 모두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교사관계> 친구관계> 부모자녀관계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본 결과, 남·여학생 모두 교사관계> 친구관계> 부모자녀관계 순으로 학교 적응에 영향을 주며, <표 IV-5>에서 보이는 것처럼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친구관계가,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부모자녀관계, 교사관계가 상대적으로 학교적응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학년 및 성별에 따른 학교적응의 차이

학년·성별에 따라 학교적응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F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IV-6>과 같다.

&lt;표 IV-6&gt; 학년·성별간 학교적응 차이 변량분석

source	SS	df	MS	F	p
학년	9467.290	1	9467.290	31.789	.000
성별	1036.840	1	1036.840	3.481	.063
학년 * 성별	5944.410	1	5944.410	19.960	.000
오차	117934.620	396	297.815		
수정 합계	134383.160	3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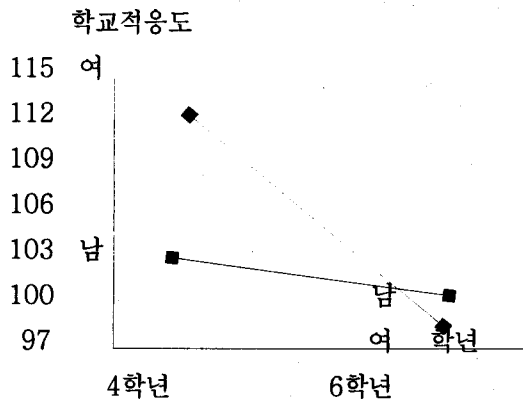
수정된 R 제곱 = .116

<표 IV-6>에서 보듯이 학년별 학교적응을 분석한 결과  $F=31.789$ ,  $p<.05$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IV-7>에서 보면 4학년( $\bar{X}=108.98$ )이 6학년( $\bar{X}=99.25$ )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즉 4학년이 6학년보다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학생간의 학교적응을 분석한 결과는  $F=3.10$ ,  $p>.05$ 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7>에서 보듯이 여학생( $\bar{X}=105.72$ )이 남학생( $\bar{X}=102.50$ )보다 학교적응 평균이 더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7> 학년·성별간 학교적응 평균과 표준편차

학년	성별	N	$\bar{X}$	SD
4	남	100	103.51	17.421
	여	100	114.44	17.563
	합계	200	108.98	18.288
6	남	100	101.49	17.904
	여	100	97.00	16.085
	합계	200	99.25	17.125
전체	남	200	102.50	17.649
	여	200	105.72	18.937
	합계	400	104.11	18.352

학년·성별에 따른 학교적응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IV-7>과 같다. 결과적으로 학년별로는 4학년이 6학년보다는 학교적응도가 더 높으며, 성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과 성별간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의 [그림 1]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남학생의 경우 4학년과 6학년의 학교 적응 정도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반면, 여학생의 경우에는 4학년에서는 높게 나타났던 학교적응 정도가 6학년에서는 현저히 낮아져 그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학년과 성별간의 상호작용 효과

## V. 논의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학교적응이 부모자녀관계, 친구관계, 교사관계에 따라 학교적응은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이 요인들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떠한지를 통합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자녀관계, 친구관계, 교사관계의 상하 집단에 따른 학교적응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부모자녀관계, 친구관계, 교사관계 모두 관계가 좋을수록 학교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사관계에 있어서 상하집단간 학교적응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자녀관계 \* 친구관계, 부모자녀 \* 교사관계, 친구관계 \* 교사관계, 부모관계 \* 친구관계 \* 교사관계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자녀관계 특히 부모자녀의사소통이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박지현(2003)의 연구, 차유림(2001)의 연구, 김현정(1998)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또, 친구관계가 좋으면 학교적응을 잘한다는 황경미(1998)의 연구결과, 교사 관계가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권영숙(2002)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또한, 아동들이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가 되면 또래 집단을 형성하면서 친구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친구관계가 다른 발달 시기보다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 Berndt(1989)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둘째, 부모자녀관계, 친구관계, 교사관계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한 결과 이들 요인들이 전체적으로 학교적응을 설명하는 변량은  $R^2=53\%$ 로 높게 나타났으며, 가장 많은 설명력을 보인 요인은 교사관계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친구관계, 부모자녀관계 순으로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최지은(2001)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부모에게 많은 일을 의지하고 도움을 받는 초등학생들에게 교사관계가 부모관계보다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최근 맞벌이 가정이 많아지고 부모들이 바빠짐으로 인해 가족 간의 유대감이 약해지면서, 상대적으로 학급 담임제인 우리 나라 초등학생에게 교사와의 관계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 것으로 보인다.

또, 초등학생들은 학교에 입학하면서 가족 밖의 성인이나 친구, 책, 매스컴의 영향을 받게 되고, 가정이나 이웃에만 국한되어 있던 사회적 환경의 범위가 학교라는 더 넓은 단위로 확대된다. 이 과정에서 아동은 규칙적인 생활과 많은 학교규칙 적응에 대한 요구를 받게 되고, 급속한 사회적 변화에 따른 학벌주의, 지식위주의 사회 풍토에 따른 부모들의 학습에 대한 기대 때문에 성취에 대한 강한 압력을 받게 된다. 이로 인하여 학습의 경쟁자인 친구관계와, 학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학습활동을 중심으로 한 인간관계를 맺게 되는 교사와의 관계가 학교적응부적응의 압력으로 작용한다고 보여진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6학년은 4학년에 비해 학교적응에 있어 부모자녀관계와 친구관계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4학년은 교사관계가 있어 6학년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저학년일수록 담임 교사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나이가 어릴수록 성격 특성이 긍정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어 교사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지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나이가 많아질수록 성인에 대해 부정하고 반항하는 성향을 보이고 이에 따라 교사의 행동을 부정적으로 지각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친구의 영향이 교사의 영향을 능가하게 된다는 이임형(1999)의 연구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고, 4학년이 다른 학년에 비해 '긍정적으로 대하는 선생님'에 대한 지각 점수가 높다는 추미경(2001)의 연구와 일치한다.

이러한 성향에도 불구하고 6학년에서 부모자녀관계가 4학년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나온 것은 중학교 진학 등 자신의 진로나 미래에 대한 계획이나 준비 등을 화제로 부모와 의사소통이 진지하게 이루어지는 한편 부모와의 관계가 더 중요시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학교적응에 있어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친구관계의 영향을 많이 받고,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모자녀관계, 교사관계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교사를 더 긍정적으로 지각한다는 조선해(1997)의 연구 결과와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들이 남학생에 비해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빈도가 더 많다는 정유진(2000)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은 남학생들이 주로 여러 명이 어울려 하는 놀이인 축구, 야구, 농구 등을 좋아하며 물러다니며 놀기를 좋아하고, 학교에서도 주로 교실 밖에서의 놀이나 활동을 좋아하는 특징을 지녀 친구들과의 관계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반면, 여학생들은 주로 집안에서 2-3명의 친한 친구들과 어울려 놀며, 학교에서도 주로 실외 놀이보다는 실내 놀이를 선호하는 등의 경향 때문에 부모자녀관계, 교사관계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초등학생의 학교적응은 학년 및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와 상호작용 효과를 알아본 결과, 학년별로는 4학년이 6학년보다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년이 높을수록 자신감 결여에서 오는 개인적 요인, 학업, 교사와 관련된 학교적 요인, 학력을 중시하는 사회 인식과 관련된 사회적 요인 등 학업에 관련된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일 것이라고 본다. 또, 학년이 낮을수록 학교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교사관계가 좋으므로 학교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어서 학교적응이 쉬울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성별에 따른 학교적응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관습이 아동의 발달 과정에 있어서 여자아동은 대인관계에 애착하도록 강화 받으며 말이 많고 애교스럽게 자라게 하는 한편, 남자 아동은 자기 주장적이고 성취 지향적이며 말수가 적고 신중한

행동을 가지도록 강화되면서 이러한 차이가 성별의 차이를 초래하여 여학생이 학교적응을 더 잘한다고 한 김지혜(2002)의 연구 결과와 상반되는 것이다. 이는 최근 자녀수가 1-2명 내외이고, 학교 교육에서 양성평등 교육이 강화되며, 전통적인 아들 선호 관념이 많이 약해지는 등의 이유로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여 기르던 양육방식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학년과 성별간의 상호 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구체적으로 보면 남학생의 경우 4학년과 6학년의 학교 적응 정도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반면, 여학생의 경우에는 4학년에서 높게 나타났던 학교 적응 정도가 6학년에는 현저히 낮아져 그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학생이 6학년이 되면서 남학생에 비해 2차 성징이 빠르게 나타나면서 남학생보다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고, 남학생들보다 민감하여 가정생활, 학교생활, 자기 자신에 대해 좀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 VI. 결론 및 제언

이상의 연구 결과와 논의를 기초로 결론 및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생의 부모자녀관계, 친구관계, 교사관계의 상하집단간 학교 적응은 차이가 있었다. 즉, 부모자녀관계, 친구관계, 교사관계가 좋을수록 학교적응을 잘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초등학생의 학교적응을 돕기 위해서는 가정요인과 학교요인을 함께 고려한 안내와 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바람직한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효율적인 학생 지도용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이 필요하다. 각 학교에는 부모자녀관계가 좋지 않아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다. 이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부모와 의사 소통하는 기술, 부모 자녀간의 역할을 바꾸어 역할놀이 해 보게 하는 것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여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준다면 부모자녀관계의 개선에 도움이 되어 부적응 아동의 문제 행동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돕고, 부모자녀관계가 나빠지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부모자녀간의 관계 개선을 위한 부모교육 및 교양강좌나 효율적인 프로그램의 실시가 학교나 사회기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부모자녀간의 관계가 나빠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문제는 부모도 함께 변해야 해결될 수 있다. 현재, 우리 부모들은 자녀관계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자녀들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그들의 욕구를 제대로 충족해 주지 못해 자녀와의 관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자녀와의 효율적인 의사소통에 대한 강연이나 가족상담 등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자녀의 입장을 이해하는 기회를 가지고,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익힌다면 부모자녀관계는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 교사는 아동이 맺고 있는 친구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친구관계

를 파악하여 그들이 긍정적인 상호 작용을 맺도록 친교활동에 관한 프로그램을 활용하며, 소 집단 활동 속에서도 지나친 경쟁보다는 상호존중의 분위기 속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 지지해주는 관계를 유지하도록 도와 학교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초등학생의 학교적응을 높이는 것은 부모자녀관계, 친구관계, 교사관계를 모두 고려한 통합적인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하고, 가정, 학교가 연계하여 지도하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라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이의 해결방안으로 초등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여 상담실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부모자녀관계, 친구관계, 교사관계를 함께 고려하여 아동의 학교적응을 지도하는데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은 학교이다. 현재 초등학교에서 아동과 가족, 친구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중재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담임교사이다. 하지만, 담임교사는 과밀학급에서 담임 학급 학생수의 증가, 넘치는 각종 업무로 인해 학생 개개인의 특성, 친구 관계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가정과 연계하여 질 높은 지도를 수행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학교에서 규칙이나 학업성적 등의 통제 역할을 하는 담임교사에게 아동-부모가 담임교사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문제를 상담하는 것도 부담스러울 것이다. 따라서, 지금은 중·고등학교만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전문상담교사의 배치가 초등학교에도 빨리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초등학교에 배치되는 전문 상담교사의 자격은 초등학교 담임교사로서 일정 기간동안 근무한 경력을 지닌 교사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초등학교 교사로서 근무한 교사가 일반대학 사회복지학과, 상담심리학과 출신의 상담교사나 중등교사로서 상담교사 자격증을 가진 상담교사보다는 초등학교 아동들을 담임하면서 경험한 아동의 문제 유형과 행동-대처 방법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초등학교 아동을 이해하고 학교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데 훨씬 더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교육대학원에서 상담심리를 전공하여 전문상담교사자격을 가지고 있는 현장의 교사들을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초등학생의 학교적응은 교사관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교사의 개인적 특성이나 인성, 대인관계 기술 등은 아동의 학교적응과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교사 임용에 있어서 교사의 인성적인 특성이 비중 있게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현재의 교사 임용은 교육적인 지식 위주의 평가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교사의 인성적인 특성은 임용 이전에 이미 결정 지어져 있으므로 교사가 된 이후의 교육으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기 어려운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교육대학생들이 학교 현장에서 실습을 할 때 실습을 담당할 현장 교사들이 일정한 준거를 가지고 인성적인 부분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임용 시 자료로 활용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장교사들을 위한 연수에 교사들의 인성·정의적 특성과 대인관계 기술을 계발시키는

프로그램을 편성·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의 교사 연수 프로그램들은 교과컴퓨터 활용 등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는 내용으로 치우쳐 실시되고 있다. 앞으로는 아동의 발달 상태·심리적인 측면을 이해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교사 자신의 심성을 계발하고, 아동에게 정서적인 지지를 줄 수 있는 자원을 갖추도록 하는 상담심리 관련 연수 개설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셋째, 학년, 성별로 중다회귀분석을 한 결과 각 변인들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는 학년, 성별에 따라 다르며, 학교적응 정도에도 학년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여학생은 4학년에서는 비교적 잘 적응하나 6학년이 되면서 학교적응 정도가 낮아지며, 남학생보다 부모자녀관계에서 더 많은 영향을 받으므로 4학년 때 보다 가정과의 연계가 적절하고 빈번하게 이루어져 지도되어야 한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를 통해, 학교현장에서 교사들이 생활지도, 인성지도에서 개인적 배경에 따른 특성에 대해 좀 더 세밀한 관심을 기울인다면 아동들의 학교적응을 도울 수 있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연구 대상이 춘천시 4, 6학년 초등학생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를 전체 초등학생들에게까지 일반화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후속되는 연구에서는 도시·농촌 등으로 표집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학교생활 적응을 알아봄으로써 보다 포괄적인 초등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둘째,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함께 연구 대상으로 고려하여 학교적응의 차이점을 규명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학교생활 환경, 학교 교육과정 운영 체제, 담임교사의 역할 등의 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요인들이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과 그 차이를 살펴보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학교적응을 도울 수 있는 교육적 가치가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 참고문헌

- 권영숙(2002). 초등학교 학생이 지각한 교사의 인성 특성과 학교생활의 적응 관계 분석. 석사학위 논문. 영남대학교.
- 김광영(1999). 초등학교 아동의 스트레스와 가정 및 학교생활 적응도. 석사학위 논문.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수연(1997). 어머니-청소년 자녀간의 갈등에 관련된 변인.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영미(2000).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영향을 주는 변인 : 부모와의 의사소통, 선생님과의 관계 및 학교활동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군산대학교.
- 김용래(2000). 효과적인 수업을 위한 교육심리학. 서울 : 문음사.
- 김정선(1995). 초등학교 아동의 고민유형과 도덕적 판단력과의 관계. 석사학위 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지혜(2002). 영재의 또래관계와 학교생활 적응. 석사학위 논문.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현정(1998). 가정의 심리적 환경에 따른 학교생활 적응과 만족도 연구.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 김혜경(2000). 아동이 지각하는 사회적지지와 자아존중감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 동아일보(2002.11.15). "친구들이 따돌려... 초등생 자살".
- 문선모(1977). 학생의 배경적 특성과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학생지도 연구 4. pp. 19-28.
- 민하영(1991). 청소년 비행 정도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가족의 응집 및 적응과의 관계.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원희(2003). MBTI로 본 교사성격이 아동의 학교적응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지원(1985). 사회적지지 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박지현(2003). 청소년과 부모와의 관계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 배숙진(1998). 청소년에게 지각된 부모의 양육방식, 자아개념, 학교적응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백영광(2001). 초등학교 학생들의 학교 스트레스 수준과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석윤희(2003). 유아의 친구관계와 또래지위 및 사회적 능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심란희(2004). 인터넷 중독과 자기효능감, 자기통제력, 부모자녀관계, 친구관계의 관련성. 석사학위 논문. 춘천교육대학교 대학원.
- 심우엽(2000). 교육심리학. 서울 : 교육과학사.
- 안창선, 남경현, 이옥범(1999). 교사론. 서울 : 교육과학사.
- 안향숙(2003). 초등학생이 지각한 교사의 지도성 유형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연구. 석사학위 논문. 청주교육대 교육대학원.
- 우수정(2001). 유치원 아동의 자아지각과 또래 유능성의 관계.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 유은희(1994). 학교적응·불안·학업성취간의 관계분석 :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고려대학교.
- 임정순(1993). 아동의 의존성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석사학위 논문. 한국교원대학교.
- 이미경(1999).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 석사학위 논문.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수정(2003). 아동이 지각한 교사 행동이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서울교육대학교 대학원.
- 이호선(2000). 아동의 또래관계가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정옥분(2002). 아동 발달의 이해. 서울 : 학지사
- 정유진(1999). 청소년 학교생활 적응의 관련 변인.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대학원.
- 조정숙(1995). 초등학교 어린이의 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석사학위 논문.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차유림(2001). 아동의 학교 적응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 최지은(2001).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관계, 또래 관계, 교사와의 관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동덕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추미경(2001). 초등학생의 교사에 대한 지각특성. 석사학위논문. 창원대학교.
- 한겨레신문(2003.11.17). "초등생까지...성적비관 투신자살".
- 황경미(1998). 초등학교 아동의 친구관계와 학교적응의 관계. 석사학위 논문. 한국교원대학교.

## A Study on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Peer Relationship, Teacher-Child Relationship, and School Adjustment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Park, Eun-Joo · Shim, Woo-Youp

School adjustment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since it is the basis of the future lif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child relationship, peer relationship, teacher-child relationship, and school adjustment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research topics of the present study were as follows:

<1> Is the school adjustment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different depending upon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2> Is the school adjustment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different depending upon the peer relationship?

<3> Is the school adjustment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different depending upon the teacher-child relationship in school?

<4> Is the school adjustment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different depending upon the grade, and sex?

460 students were sampled in Kangwon-do, and 400 were used in the final data analyses, excluding 60 due to the incomplete answering.

Parent-child relationship inventory, peer relationship inventory, teacher-child relationship scale, and school adjustment scale were use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win) 10.1K.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elementary school students adjust themselves to the school better when parent-child relationship, peer relationship, and teacher-child relationship are good.

Second, teacher-child relationship has the most important effects on the school adjustment, and peer relationship, and parent-child relationship sequentially.

Third, 4th graders adjust to the school better than the 6th, and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boys and girls in terms of school adjustments.

Based on the above results, discussion and implications for the future research and education were as below:

First, teachers need to understand children's school adjustments depend upon their human relationships especially upon teacher-student relationships.

Second, teachers need to understand students have more difficulties in adjusting to the school when they grow older.

Third, teachers have to keep the children positive peer relationship, and parent-child relationship which are important in children's adjusting to the school.

Fourth, future researches need nation-wide sampling and more systematized research design in order to generalize the results.